■ 카 라이프 고유가 시대, 연비개선 10계명

차계부 작성 낭비 줄여 주유는 3분의 2정도만 공회전·급제동 자제를

스페어 타이어, 비상공구 등 꼭 필요한 짐만

올해 초 보통휘발유 가격이 이달 25일 현재 광주·전남지역 모두 평균 1718.9원을 기록하고 있다. 경유도 올해 초 1410원대에서 4개월 사이에 100원가량 올라 광주 1508원, 전남 1509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시내 일부 주유소의 경우 보통휘발유가 1800원대에 육박하고 있고, 경유도 1600원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그렇다고 차를 몰지 않을 수도 없으니 연료 효율을 높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운전자의 노력에 따라 연간 수십만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말이다. 에너지관리공단(www.kemco.or.kr)의 도움을 받아 '연비 개선 10계명'을 알아봤다.

◇기름은 아침에 3분의 2만 넣어라=연료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비가 뛰어난 차량을 고르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차량의 연비가 나쁘면 연료를 아끼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고연비 차량으로는 모닝, 마티즈, 스포티지, 투싼, 베르나, 프라이드 등이 꼽힌다.

연비를 높이기 위한 사전준비도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차계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차계부를 작성하면 자신 차량의 주유량과 주행거리 및 운행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다. 공단은 차계부를 기록하면 1㎞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연료를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운전하기 전 경제적인 주행코스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험한 길과 막히는 길은 연비와 차량성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인 만큼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확한 길을 몰라 왔다갔다 하는 것도 연료 효율 측면에서 피해야 한다.

주유할 때도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것보다 3분의 2 정도만 넣는 게 좋다. 또 기름을 넣는 시간대는 열 때문에 연료가 팽창하는 낮보다는 아침이 유리하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공기압이 10%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연료소비가 1% 정도 증가한다. 때문에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면 연 2만4000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경제적 운전은 습관이 좌우=연료 효율을 높이려면 경제적인 운전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 중 첫 번째가 공회전을 줄이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휘발유를 사용하는 1500cc급 소형 자동차가 하루 5분간 공회전을 하면 한 달에 2.6ℓ의 연료를 더 소모한다. 1년이면 31ℓ가 더 드는 셈이며, 배기량이 커지면 연료비도 그에 비례해 늘어난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않으면 연간 3만6000원이 절약된다.

급출발과 주행 중 급작스러운 속도변경을 자제하는 것도 연료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급제동하기를 반복하는 운전자보다 일정 속도로 주행하는 운전자는 20~30%(연 6만원) 정도 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가능하면 저속으로 운전하는 것도 연비를 높인다. 엔진 회전 수(rpm)를 2000~2500에 맞춰 달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통계적으로 1500cc급 소형차동차를 몰고 시속 80㎞로 달리는 것보다 시속 60㎞로 달릴 때 19%(연 11만1600원) 정도 연비가 나아지고 시속 100㎞로 달리면 20%, 130㎞로 달리면 50% 정도 연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름철이라도 가급적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창문을 여는 것이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고속주행 때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내리면 공기저항이 커져 연비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시속 60㎞ 아래로 달릴 때는 창문을 열고, 그 이상이면 에어컨을 켜는 것이 효율적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연비개선 10계명

- 연비 좋은 차를 고른다
- 차계부를 작성한다
- 경제적 주행코스를 선택한다
- 불필요한 짐을 싣지 않는다
- 연료 주유는 아침 일찍
- 급출발·급정거 삼간다
- 불필요한 공회전을 않는다
-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하게
- 가급적 속도를 낮춘다
- 에어컨 사용 대신 창문을 연다

급제동, 완만한 제동보다 연료 소비 2배

공기압 10% 부족하면 연료소비 1% 증가

1등급 차량 5등급에 비해 연료 절반 아낀다

금호타이어가 지난달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처음 공개한 세단용 스포츠 타이어 '엑스타 LE 스포츠'(왼쪽)와 저연비 친환경 타이어 '에코윙 올 시즌'. 〈광주일보 자료사진〉

저연비 타이어, 돈 아끼고 환경 지키고 드라이브 즐기고 싶다면 스포티 타이어

■ 차와 타이어의 궁합

타이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기능을 담당한다. 차량과 탑승자의 무게를 이겨내야 하고, 차가 움직이거나 설 때도 핵심역할을 한다. 또 도로의 진동을 줄여 승차감을 높이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도 한다. 과거 타이어는 펑크나지 않고 잘 달릴 수만 있으면 됐다. 하지만 요즘엔 승차감까지 갖춘 타이어를 원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또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요구가 달라지면서 타이어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돈도 아끼고 환경도 지키고=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저연비 타이어다. 회전저항을 줄여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여주는 친환경(에코) 타이어다. 금호타이어 '에코윙', 한국타이어 '앙프랑'이 대표적인 제품으로 꼽힌다.

에코윙은 경량화 구조로 회전 저항을 크게 줄여 기존 제품에 비해 연비를 5.5% 높였고, 이산화탄소는 연간 188㎏ 줄였다. 옆면에는 이슬과 풀잎 모양의 디자인 패턴을 적용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에코윙은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로 1년 평균 2만㎞을 주행할 경우 14만6545원이 절약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나무 34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앙프랑은 회전 저항을 21%가량 낮추는 방법으로 기름값을 줄인다. 시속 110㎞로 연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16%가량 연비 개선 효과를 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중형차용은 16만원, 준중형차용은 13만원 선이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승차감 개선에 중점을 둔 제품으로는 금호타이어 '엑스타LE'와 한국타이어 'SF옵티모' 등이 있다.

금호타이어 '엑스타 LE 스포츠'는 접지 압력을 분산시키는 기술을 통해 고속주행시 뛰어난 승차감과 안정된 핸들링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3채널 직선 와이드 그루브 적용해 젖은 노면에서 성능이 탁월하다. 또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비대칭으로 설계해 소음은 잡고 안전성은 높였다.

◇달리는 재미=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달리는 재미'다. 스포츠카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승용차로도 역동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맛보고 싶다면 스포티(Sporty) 타이어를 선택하면 된다. 이 타이어는 지면과 닿는 부분이 일반 타이어보다 넓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우디 'A6 2.0 TFSI 스포츠' 출시

아우디코리아는 기존 중형 세단에 스포츠 바디킷을 적용한 'A6 2.0 TFSI 스포츠'(사진)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를 시작했다.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28.6kg.m, 제로백 가속시간은 8.5초이며, 국내 공인연비는 10.8km/ℓ, 최고 속도는 210km/h에 달한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일반 모델이 6030만원, 다이내믹 모델은 6440만원이다.

현대차 쏘나타 고객 400쌍 초청

현대자동차는 다음달 5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쏘나타&이승철 25주년 기념 콘서트'에 쏘나타 고객 400쌍(800명)을 초청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는 가수 이승철과 쏘나타가 똑같이 데뷔 25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당일 행사장 입구에 '쏘나타의 25년'이라는 주제로 쏘나타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각종 수상패와 역대 광고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쏘나타 구매고객이 다음달 2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다음날 당첨자를 발표한다.